

## 7장/ 생명을 위해 판단하라(근친상간과 음행 문제-고전5장)

### I. 오늘의 포인트

1. 고린도교회 안에 일어난 근친상간 죄에 대해 알아보고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
2.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는지 확인해 보고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생각해 본다.

### II. 바울이 들은 소식 : 교회 내에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음행이 일어나고 있음

-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

#### 1. 근친상간이 일어난 고린도교회에 대한 바울의 책망

- 1)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쫓아내지도 않는다고 봄(2절)
- 2) 자랑함(6절)
- 3) 음행하는 자들과 오히려 교제함(9절)

이방인마저도 용납할 수 없는 근친상간 죄를 고린도교회가 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이러한 사람(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 죄악을 통한이 여기지 않고 도리어 용납하고 그들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교만과 자랑 가운데 있었다.(6절)

#### 2. 어떻게 교회 내에서 근친상간 죄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으며 이런 행동을 교회가 묵인했던 것일까?

근친상간은 이방인 중에서도 법으로 금하는 행위로 이러한 일이 교회 내에서 자행되고 묵인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이고, 진정으로 그 분을 예배하는 교회라면 이런 엄청난 일을 자행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일을 묵인할 수가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교회는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었다.

##### 1)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다.

신약시대는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대단했다. 영지주의자들은 헬라이어인 그노시스(gnosis, 지식)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들은 구원을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무지로부터의 구원이다. 따라서 이들은 신령한 지식을 강조한다. 이들은 육을 악한 것으로, 영을 선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이원론자들이다.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 ① 욕신에 지배를 받지 않는 영지주의자들

영지가 된 자는 세상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가르쳤기에 이들은 모든 것에 자유를 가졌다. 이런 생각 속에 근친상간(고전5:1-8)과 창녀 집 출입(6:12-20)을 허용하는 성적 방종의 형태로 그리고 모든 것에 자유(모든 것이 가하나)로 나타났다. 즉 깨달은 자(영지가 된 자)는 이 세상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었고, 통한이 여길 이유도 없었다.

### ② 욕신의 일을 철저히 부정하려는 자들

결혼 내 성생활의 부인(7:1)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 독신주의로 나타났다.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영지의 삶을 위해선 극도의 욕신의 생활을 절제하도록 한다. 그 길을 향해 가기 위하여 철저히 금욕하게 된다. 이들은 욕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 가는 자들을 정죄하는 쪽으로 간다.

### 2) 교회내의 당파의 영향이다.

파당과 분쟁은 교회 공동체의 책임과 결속을 매우 약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비상적인 일들을 함께 막아낼 수 있는데 분쟁하면 불법도 용인하는 경우들이 많다. (내 쪽 사람이면 덮어주려고 하고 상대 당이면 드러내려고 한다.)

### 3) 후견인 제도 때문이다.(당시 고린도 시의 영향)

1세기 지중해 연안 사회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이며, 후견인 사회이며,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사회이다. 공의(진리)보다는 지도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화목을 더 중시하는 소위 공동체 중심의 후견사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의 부도덕을 지적하거나 통한이 여기기란 쉽지 않다. 만약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동안 교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이 사람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구조)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다루기란 쉽지 않게 된다. 이것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감히 힘 있는 자(?)의 잘못된 행동을 공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 3. 근친상간에 대한 바울은 해결 방법

#### 1) 서로 다른 충돌되는 구절

2절에서는 쫓아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5절에는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라고 말한다.

2절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13절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와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욕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욕은 쫓아내는 것이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는 바울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

## 2) 바울의 깊은 고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몰라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고린도 시의 경우는 음행으로 자신의 쾌락을 즐기던 시이다. 그런 속에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음행의 일을 즐기는 자들이 있었다. 바울이 이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를 전하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다.

### ① 바울은 공동체가 병들지 않도록 누룩을 치워야 한다고 생각함.(6절)

누룩은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다. 누룩은 치우지 않으면 전체가 병든다. 공동체가 병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 ② 그러나 결국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다.(5절)

공동체 안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를 지킨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쫓아낸다. 그런데 바울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쫓아내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유대공동체와 다른 것이 없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기에 바울은 단순히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음행하는 자들을 쫓아내라고 한 것이 아니다. 바울의 고민은 결국 음행하는 자들도 구원 받는 길을 택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쫓아낸 것이다.

굉장히 다른 사고이다. 기독교인 중에는 간혹 무조건 참아야 하고, 화를 내면 안 되고,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해야 한다. 다만 진짜 생명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다. 생명을 사랑함에서 출발하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말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권하기도 할 것이다.

### ③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를 끊어서는 안 된다.(10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이기에 그들과 단절함으로 금욕주의적 신앙을 극복하기를 원했다. 세상과 단절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과 사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세상 밖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사실 빛이 있는 이유는 어둠 때문이다. 어둠과 사귀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빛은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그 어둠에 있는 자들

의 길을 비추어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 III. 오늘의 적용

1.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자들을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예수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사람을 보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때로는 채찍도 들어야 한다. 그때 교회도 살고 그 생명도 살 것이다.

2. 교회는 결국 생명을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많은 일이 있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결국 일이 중심일 때가 많다. 사람이 상처입고, 떨어져 나가도 일이 성공만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3. 신앙인은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세상과 단절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기독교인에게는 없다. 그것은 빛의 사명을 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스스로 기독교인답게 공동체와 생명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된다.